

니트 소재를 활용한 여자한복 디자인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Knit Materials Woman's Han-bok Design

광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석사 김현숙

교수 안명숙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Gwangju University

Master : Hyun Sook Kim

Professor : Myung Sook A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부위별 실용성 증대를 위한 디자인 |
| II. 한복의 형태적 특성과
니트 소재의 특성 | V. 결론
참고문헌 |
| III. 니트 소재를 활용한 한복 디자인 | |

<Abstract>

The study purpose was to increase Han-bok's convenience by changing materials while maintaining keep the traditional Han-bok style.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actual Han-Bok wearers about the inconveniences of its form and design by combining knit with Han-bok. On the basis of this survey, we present a practical design for use in daily life.

Responding to the question about Jeo-Go-Ri(jacket), most respondents preferred a Han-bok which stressed elasticity by utilizing knit on Jeo-Go-Ri's front and back body line(JD1, JD4). For the question about arm holes, most respondents liked a design which substituted knit materials for Sam-hoi-jang(colorful strips) to ensure ease of use and shorten both the width and length of the breast-tie(JD2, JD3). For the sleeve edge, they preferred a design which solved the difficulties of rolling up the sleeve when working (JD2~JD5).

Regarding the most inconvenient aspect of wearing Chi-mas(skirts), the respondents indicated tightening of the breast and an uncomfortable feeling due to the skirt length. This suggested that the waist of the vest should be lengthened to avoid the feeling of pressure(CD2, CD5).

Regarding changes to the skirt shape the respondents preferred buttons and hooks rather than using skirt strings(CD4, CD5).

주제어(Key Words) : 한복(Han-bok), 니트(knit), 형태(form), 소재(materials)

I. 서론

한복은 일상생활에서 입고 활동하기에 다소 불편하거나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특별한 경우인 결혼, 행사, 명절 등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즐겨 입지 않는 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한복의 일상화,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복의 전통성을 가능한 한 살리면서 기능면에서의 실용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으로 우리가 소위 개량한복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그 예이다. 둘째는 한복의 고유 형태를 뛰어넘어, 현대 패션에 그 전통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시도이다(진경옥, 1997).

본 연구는 전자의 입장에서 한복의 실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연구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개량한복 또는 생활한복의 경우 주로 형태적인 부분의 변형을 피함으로써 활동하기에 편리하게 디자인하여 왔다. 그러므로 실용성은 증대되었지만 전통한복이 주는 아름다운 미는 변형을 통해 많이 손상되었다. 때문에 호감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현재는 주로 서비스 업종의 유니폼으로 사용되거나 몇몇 애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복을 실용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주로 형태적 변화를 통한 시도였음에 반하여, 본 연구는 니트 소재를 활용하여 보다 실용적인 한복을 디자인하고 제작함으로써 한복의 일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복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고, 구성 요소별 분석을 통해 각 부위별로 니트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판단하여 이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실사용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여성 한복의 기본이 되는 저고리와 치마로 국한하였다. 또한 생활한복이 아닌 전통한복에 니트 소재를 활용하여 디자인하는 것으로 국한하였다. 즉 완전한 변형이 아니라 형태적인 요소는 그대로 갖추되 소재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니트라는 소재로 한복의 불편한 부위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가진다. 니트는 신축성과 방추성 등 소재로서의 우수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일반사람들이 한복과 어울리는 소재로 인식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아직 생소한 니트 소재를 한복과 접목시키는 것은 한복을 입는 대상자들과 밀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II. 한복의 형태적 특징과 니트 소재의 특성

1. 한복의 형태적 특징

한국복식의 기본구조는 바지와 저고리, 치마와 저고리의 상하가 분리된 형이며, 상의는 앞에 여밈이 있는 전개형이고, 겹에 입는 포는 원피스 식의 전개형이다. 이런 기본 구조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어 지금까지 계승된 우리나라 복식의 기본형태임을 알 수 있다(김영자, 1992, p. 60). 입체적인 사람의 몸에 평면적인 의복을 입혀 형성되는 주름 또는 여유로움의 표현이 우리 복식의 미적 표현이다. 따라서 서양복과 같이 입체적인 몸에 맞는 입체적인 옷이 아니므로 몸에 밀착성도 부족하고 그로 인한 불편한 점이 있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김진아, 1994 ; 이선영, 1989)에서도 한복을 입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활동에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한복의 형태에서 오는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은 현대의 의복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1) 저고리의 형태 분석

저고리는 시대에 따라 그 모양이 조금씩 변화해 왔다. 상고시대부터 지금까지 저고리의 형태는 저고리의 길이, 깃 모양, 깃의 위치, 선에서 회장으로의 변화, 고름의 길이, 배래의 모양 등 그 형태 변화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소황옥, 2003, p. 44).

몸판은 앞과 뒤로 나누어지며, 뒷길 중앙을 박아서 뒷중심선이 생긴다. 과거에는 옷감의 폭이 좁아 연결해 옷을 지었으나, 현대에는 일부러 생자리를 박아 뒷중심선을 만든다. 직조기술이 발달하여 넓은 폭의 직물이 사용되었으나 변하지 않는 한복 저고리의 독특한 요소로 남아 있다(고복남, 1987, pp. 30-31). **섶**도 과거에는 옷감의 폭이 좁아 연결했었고, 현대에 변화와 응용이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섶을 따로 달므로 해서 생기는 변화의 선이 저고리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소매**는 인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면서 자유스러운 부위이므로 변화의 폭이 넓은 곳이다. 소매의 특징 중 하나는 옷감의 결의 방향을 폭으로 잡아 현재 양복에서 재단하는 올의 방향을 소매의 길이로 하는 재단방법과 반대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고리를 입었을 때 어깨에서부터 소매부리까지 외측선이 곧게 살아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몸판과 소매의 연결로 회장선을 사용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겨드랑이 부분의 뜯어지기 쉬운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능적으로 대기 시작하였던 것이 점차 장식적으로 변하여 아름다움을 더하는 요소가 되었다. 형태적 측면에서 회장선은 색상의 대비로 인해 몸체를 축소시키게 하는 효과도 있다. 깃은 앞 몸판에서부터 뒷 몸판까지 연결되어 목둘레를 장식하며 한국

복식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다. **웃고름**은 기능적으로 의복을 정돈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후대에 갈수록 저고리 길이는 짧아지고 반면에 웃고름은 점차 길어지면서 장식적인 역할을 하였다. 웃고름은 저고리의 도련인 가로선을 배경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치마와 저고리의 분리를 의식하게 한다.

2) 치마의 형태분석

저고리의 부드럽고 간결한 윤곽선은 은은한 미를 느끼게 하고 선 자체의 운동감은 강렬하게 표현되지 않은데 비해, 치마의 선은 울동적인 변화의 선이다(김영자, 1992, p. 71). 치마는 폭은 넓으나 형태는 상당히 단순해 큰 면적에 비해 디테일한 부분이나 다른 선 등의 구성적 요소는 전혀 없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름지는 모양에 의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옷이 특징적이다. 특히 치마의 형태는 잘게 잡혀진 주름이 아래로 수직적인 분위기를 주며 허리피의 색을 흰 것으로 하여 치마색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다. 허리끈 역시 장식성이 더해져 폭이 넓어지고 길이도 길어져 배색으로 길게 치마의 위로 내려서 전면에 강한 포인트를 주기도 하였다. 치마는 폭이 넓어 온돌생활에 적합한 기능성이 있는 반면 뒷중심 여밈이 열리게 되어있다(김영자, 1992, p. 66).

치마는 여러 종류의 옷 중 가장 변화가 적었던 옷으로 개화기 이후 개량한복의 디자인에 나타난 한복 치마 형태의 변화도 길이를 줄이거나, 통치마나 조끼허리 등으로 착용이 간편하도록 개량한 점과 60년대 후반 이후 A-line 실루엣으로의 변화 등이 전부이다(천중숙, 서동애, 허지혜, 최선희, 양유영, 1998). 그만큼 형태면에서 단순하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좁았다.

잔잔한 주름으로 팽창된 공간을 형성하면서 발등까지 치렁치렁하게 입고 서 있는 모습에서 볼륨감을 느낄 수 있다. 즉 형태는 단순하나 착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여유미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이 한복의 치마이다. 옛날에 치마를 감싸는 방법에 36가지가 있었다(이규태, 1991, p. 249)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 니트 소재의 특성

니트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추측되며, 니트의 역사는 직물의 역사보다 더 오래되었다. 16세기 산업혁명을 전후해 수평기가 발달하기 이전은 손만을 이용하여 제작하던 시기였다. 이렇듯 손만을 이용하여 제작하던 시대에서 산업혁명을 전후해 수평기가 발명되면서 대량 니트 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박문희, 2003).

니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상당히 많지만 한복에 접목시키기 좋은 특징 몇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신축성이 좋다는 것이다. 둘째, 드레이프성과 유연성이 좋아 착용자에게 구속감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고, 루프에 의한 조직 구조의 특성 때문에 섬유와 실의 움직임이 자유로워 유연하면서도 촉감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 몸에 잘 맞아 착용감이 좋다(윤혜준, 2001). 셋째, 성형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직물과는 달리 편성 도중에 루프의 연결방법을 적당히 변화시켜 천의 폭을 증감시키거나 필요한 곳에 부가 또는 접속시켜 바라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수아, 2004).

니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는 첫째, 직물과는 달리 한코가 끊어지면 사다리꼴로 풀리는 현상인 전선(run)이 있다. 둘째, 가장자리 부분이 휘말리는 컬 업(curl up) 현상이 있어 편성물의 재단과 봉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다. 셋째, 형태 안정성이 적어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김수아, 2004)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니트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직물에 비해 훨씬 특징적이다. 따라서 니트의 장점 중 한복과 접목될 수 있는 소재로서의 우수성인 신축성, 유연성, 성형가능제품 등의 특징을 활용하여 한복의 형태에 소재로서의 접목을 시도하고자 한다.

Ⅲ. 니트 소재를 활용한 한복 디자인

1. 설문조사 및 분석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니트 소재를 활용하여 보다 실용적인 한복을 디자인하고 제작함으로써 한복의 일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복의 불편한 부위를 니트 소재를 활용하여 보완하는 디자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광주,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여성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과 니트 소재로 대체 접목하고자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8주간 실시되었으며, 사전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500부의 설문지 가운데 총 485부가 회수되어 97%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한 문항이라도 결항으로 처리한 설문지를 포함하여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응답지 60부(12%)를 제외한 425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사용한 분석 방법은 통계 package SPSS 12.0(Ver.)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ies)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총 34문항으로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3문항, 한복에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위한 문항 분석 3문항, 한복 디자인에 관한 개인적인 자각 측정 문항으로 저고리에 관한 17 문항, 치마에 관한 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방법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좋지 않다” - 5점 “매우 좋다”)로 구성하였으며, 복수응답을 허용한 문항도 8 문항 있다.

2) 분석결과

(1) 저고리에 대한 자료 분석

저고리 착용시 불편한 부분과 개선 방향 및 니트 소재와 의 디자인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저고리 착용시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웃고름이 길어 잘 풀어진다”가 20.6%(308명)로 가장 많았고, “앞이 팽 조인다”가 16.3%(244명), “겨드랑이(진동) 부분이 팽 조인다”가 15.8%(237명)로 나타났다. 한복을 입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부위들이다. 따라서 저고리를 디자인할 때 니트 소재는 웃고름, 진동부분, 앞이 팽 조이는 부분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곳에 사용된다.

저고리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16.9%(249명)가 진동(겨드랑이) 부위로 가장 많았고, 동정 부위에 대한 응답이 14.9%(220명), 고름 부위에 대한 응답이 14.6%(216명)로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저고리 착용시 불편부위와 개선부위 모두에서 저고리의 진동과 웃고름의 불편함이 가장 컸던 만큼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고리 어느 부분에 니트 소재를 활용하면 좋겠냐고 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3.4%(237명)가 진동(겨드랑이) 부위를 선택하였으며, 앞길부위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10.4%(106명), 동정부위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10.3%(105명)로 나타났다.

저고리 소매부리 부분에 니트 소재를 활용하는 질문에는

<표 1>과 같이 응답자의 43.5%(185명)가 보통이라 답하였으며, 좋다는 응답자도 41.6%(177명)가 있었다. 한복을 입고 일할 때 소매통은 넓으나 소매부리가 좁아 걷어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 저고리 깃(목) 부분, 쇄, 진동(겨드랑이)부분에 니트 소재로 디자인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결과도 <표 1>과 같다.

저고리 전체를 니트 소재로 디자인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은 35.5%(151명)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으며, 28.5%(121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리 길이의 적합성에 대해 42.1%(179명)의 응답자가 “현재의 저고리 길이보다 길게 ”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반면 36.2%(154명)가 현재의 저고리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선행연구(채금석, 1999)에서 여자 저고리를 생활한복으로 만들 경우 전통 저고리 길이보다 10cm 정도 긴 길이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전통저고리의 짧은 길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임을 나타낸다.

웃고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듭단추”로 대체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57.9%(246명)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현재의 웃고름을 그대로 이용”하자는 응답자 역시 13.9%(59명)로 나타났다. 니트로 만든 웃고름을 사용하자는 응답자도 13.2%(56명)로 나타났다. 또한 웃고름의 폭과 길이에 대한 개선 의견도 현재 저고리의 웃고름보다 짧고 좁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이다”가 42.1%(179명)이고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35.3%(150명)로 많았다.

웃고름을 니트 소재로 대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6.2%(154명)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으며, 28.8%(122명)가 찬성하여 긍정적인 측면도 많으나, 니트로 대체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1.3%(133명)로 많아 디자인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2) 치마에 대한 자료 분석

한복 착용시 특히 치마의 팽 조이는 어깨허리로 인한 불편함을 느껴 보았으므로, 치마의 폭과 길이, 어깨허리 등

<표 1> 저고리 부위에 따른 니트 소재 활용

저고리 부위	빈도/명(%)					합 계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좋지 않다	전혀 좋지 않다	
소매부리	21(4.9)	156(36.7)	185(43.5)	53(12.5)	10(2.4)	425(100)
깃(목)	20(4.7)	157(36.9)	164(38.6)	74(17.4)	10(2.4)	425(100)
쇄	10(2.4)	96(22.6)	196(46.1)	108(25.4)	15(3.5)	425(100)
진동(겨드랑이)	59(13.9)	222(52.2)	102(24.0)	33(7.8)	9(2.1)	425(100)
저고리 전체	15(3.5)	121(28.5)	151(35.5)	114(26.8)	24(5.7)	425(100)

로 인한 불편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한복치마 착용시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에 29.9%(320명)의 응답자가 “가슴이 팍 조이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였으며, “치마길이가 길다”는 것에 응답한 사람도 25.1%(268명), “뒤 자락 여민 부분이 벌어지는 것”에도 21.7%(232명)의 응답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 치마 부위 중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위에 대한 질문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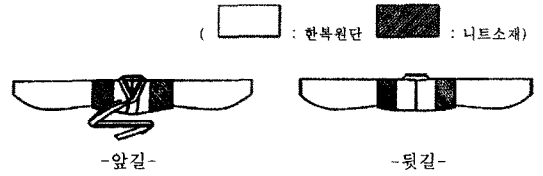
(214명)가 “치마길이”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치마폭” 개선이 25.9%(200명), “치마끈” 개선이 25.0%(19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항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비교해 볼 때 한복 치마에 대한 개선은 항목별로 거의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치마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곳은 저고리처럼 어느 일정 부분이 아니라 어깨허리, 치마폭, 치마길이, 치마 끈 등에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한복 치마부분에 니트 소재를 사용하였으면 하는 부위로는 전체 응답자의 46.5%(248명)에 해당하는 많은 수가 “어깨허리” 부위에 니트 소재를 사용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 “치마폭” 부분이 22.0%(117명), 치마끈 부위가 15.9%(85명)를 나타내었다. 또한 치마의 어깨허리 부분에 니트 소재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도 “좋다”가 48.5%(206명)으로 높아 이 의견을 지지하였다.

치마폭을 니트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할 때 적당한 폭에 대한 의견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38.6%(164명)가 “5폭”이라 답하였으며, 24.7%(105명)가 “4폭”을, 20.0%(85명)가 “3폭이하”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넓은 폭으로 인한 거추장스러움보다는 적당한 폭으로 미적 아름다움과 함께 실용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복치마 전체에 니트 소재를 사용해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35.8%(152명)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으며, 32.5%(138명)가 “좋다”고 응답하여 니트로 치마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따라 살펴보면 다수의 여성들이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활동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복을 잘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



〈그림 1〉 저고리 앞·뒷길 니트 소재 사용 디자인

면 가슴이 팍 조인다거나, 옷고름이 잘 풀리는 것, 겨드랑이가 짧고 조이는 등의 불편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분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디자인시 니트 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정보수집결과를 통한 디자인 방향 제시

(1) 저고리

설문분석의 결과를 종합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고리에서는 겨드랑이(진동)와 옷고름, 소매부리, 소매 배래너비 등을 불편한 부분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디자인시 위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부위에 니트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즐겨 입을 수 있는 편리하고도 전통을 간직한 한복을 디자인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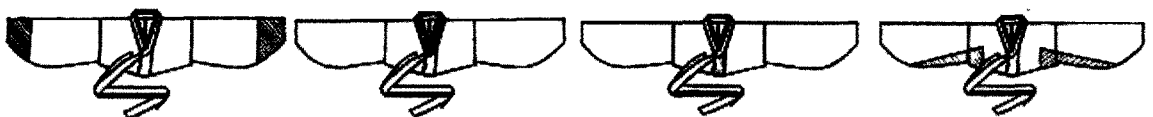
저고리는 목판, 깃, 섶, 소매, 옷고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니트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그 동안 일반적으로 한복의 형태 중 불편하다고 제기되었던 부위와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희망하는 부위를 선정해 그 부분에 니트 소재를 접목하여 디자인 한다.

목판은 뒤판을 3등분하여 가운데 부분에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선정되어 그 부분에 니트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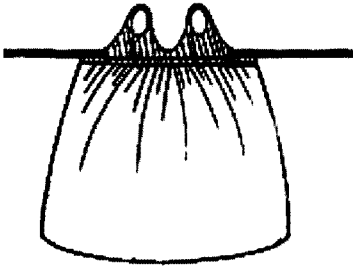
옷고름은 너무 길어 생활 속에서는 불편하여 밟혀서 풀리거나, 한복 소재의 특성으로 잘 풀어지므로 옷고름을 짧게 하고자 한다. 또한 한복의 소재 특성상 옷고름이 잘 풀리는 경향도 니트 소재로 해소할 수 있다. 생활한복에서는 매듭단추나 단추 등으로 개량해 사용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저고리의 진동부위와 앞뒷길의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니트 소재의 사용부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 ① 소매부리
- ② 깃(목)
- ③ 섶
- ④ 진동(겨드랑이)



〈그림 2〉 저고리 부위별 니트 소재 사용 디자인



〈그림 3〉 치마의 어깨허리에 니트 사용 디자인

의 75.8%(322명)가 다음과 같이 앞·뒷길 가장자리로 진동 부위와 마주치는 곳에 니트 소재의 사용을 희망하는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또한 (그림 2)에서와 같이 소매부리와 깃, 섶, 진동 부분에 니트소재를 활용하면 한복의 형태에서 오는 불편을 니트 소재를 접목시켜 훨씬 활동에 편리한 디자인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④번의 진동부분에 니트 소재를 사용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선정되어 실질적인 디자인에 응용되었다.

(2) 치마

치마의 경우에는 특별히 큰 차이는 없었으나, 어깨허리부분, 치마길이, 치마끈 등을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였다. 치마의 어깨 허리부분 또는 허리끈이 팍 조이거나 답답하여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지금까지 한복 치마의 답답한 부위를 해소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치마는 (그림 3)과 같이 어깨허리 전체에 니트를 사용하고 치마끈을 묶는 것에서 오는 압박을 피하기 위해 여밈 부분을 단추나 후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치마폭수와 치마길이에 대한 의견은 개인에 따라 또는 유행에 따라 다르므로 특별히 니트로 디자인하여 해결될 부위는 아니다. 다만 니트로 치마를 만들어도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 구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다.

IV. 부위별 실용성 증대를 위한 디자인

한복과 니트 소재의 접목을 통한 디자인 제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소재는 한복의 전통소재이면서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양단과 수직실크를 사용하였다.

특히 최근에 다양한 종류의 직조와 패턴이 있는 니트가 많이 나왔으나, 그 중 한복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위편성 조직의 평편형 니트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저고리전체를 니트로 한 경우에는 약간의 직조 기법과 패턴(문양)이 있는 니트로

과감하게 선택하였다. 니트는 길이로 쓰이는 경사 방향을 사용하지 않고 위사 방향으로 사용하였다. 위사 방향으로 사용한 이유는 실루엣에서의 형태의 고정과 외관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때문이다. 또한 니트의 외관 및 무게감 등은 양단 소재와 거의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 최대한 니트 소재의 무게로 인한 처짐방지를 피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였다.

니트 저고리와 치마는 니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안감도 니트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면서 효율성을 최대한 증가시키고자 디자인하였다. 또한 니트의 단점인 축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성 있는 실크 심감을 대어 형태의 유지를 보완하였다. 봉제방법에 있어서 니트 소재와 양단을 사용하여 박음질 할 때 밀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니트 뒷면에 실크심을 붙여 박음질 하였다. 안감으로는 니트를 사용한 부위에 안감도 함께 신축적이어야 하므로 탄력있는 니트 소재 또는 신축성있는 안감을 사용하였다.

색상은 기본색인 오방색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와 어울릴 수 있는 배색들을 선택하였으며, 빨강, 파랑, 자주, 노랑,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다. 니트의 색상도 한복과 어울릴 수 있는 자주, 황토색, 흰색, 검정색, 다색무늬 등을 사용하였다.

설문분석의 결과를 종합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고리 부분에서는 거드랑이와 소매부리, 소매통, 앞길·뒷길 가장자리 부분, 옷고름 등을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였고, 치마의 경우에는 특별히 큰 차이는 없었으나, 어깨허리부분, 치마길이, 치마끈 등을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부분들을 보완하여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실용적이고 편리한 전통을 간직한 한복디자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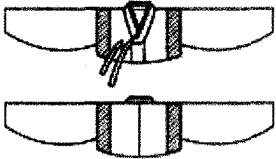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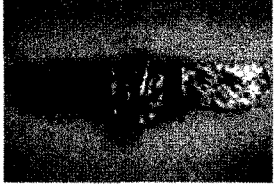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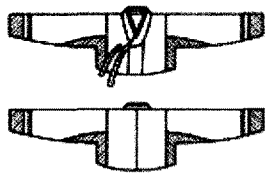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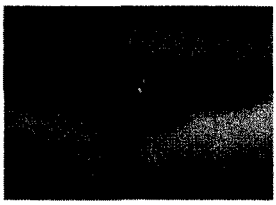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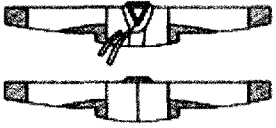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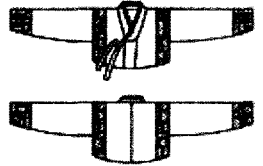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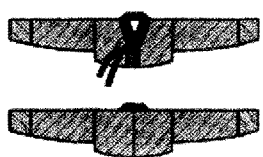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한복의 형태상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니트 소재를 한복에 접목시켜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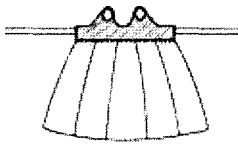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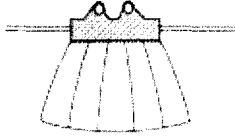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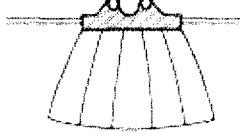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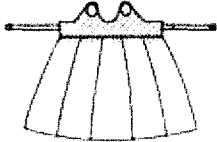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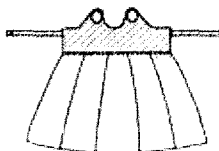

먼저 저고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고리의 경우, 구체적인 니트소재 부위를 선정하는 디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고리 앞길과 뒷길의 어깨끝 부분에 니트 소재를 길이 방향으로 넣어 디자인(JD1, JD4)하여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진동 부분은 삼회장 부분(JD2, JD3)을 니트 소재로 대체하여 여밈 부분에 여유를 주고, 옷고름은 폭과 길이를 모두 짧게 하는 디자인(JD1~JD5)을 선호하였다. 소매부리 부분에 즉 끝동에 니트 소재를 사용해 일할 때 한복의 소매 부리가 좁아 걸어 올리기 힘든 부분을 해결하는 디자인(JD2~JD5)

〈표 2〉 니트를 활용한 저고리 디자인

디자인 연번	소재	색상	작품설명	도식화 (빗금친부분:니트소재)	디자인
JD1	양단 니트	회색 양단 자주색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형적인 전통저고리디자인 -저고리의 진동부위 자주색 니트 배색 -옷고름 길이는 짧고 폭은 좁게 디자인 -니트 부위의 압감은 탄력적인 직물(폴리에스테르) 사용 		
JD2	양단 니트	곤색 양단 자주색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고리 길이는 전통저고리의 길이보다 5cm 김 -소매 배래 부분은 좁게 디자인 -겨드랑이(진동) 부분과 소매 부리 부분에 니트 소재 사용 -옷고름의 길이와 폭을 짧고 좁게 함 -니트를 소매 부리 부분에 사용 		
JD3	수직실크 니트	남색수직실크 흰색 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고리 겨드랑이 부분과 소매 부리 부분에 니트 소재 사용한 디자인 -소매 배래 좁음 -옷고름은 좁고 짧게 디자인 		
JD4	수직실크 니트	-흰색 수직실크 -연두색계열 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고리 길이는 전통저고리의 길이보다 5cm 김 -저고리 앞길과 뒷길 진동 부위와 소매부리 부분에 5cm 정도로 니트로 패치워크 한 디자인 -평면의 단조로움과 밋밋함을 없애기 위해 앞길과 뒷길 가장자리에 연두색 계열의 니트를 패치워크 		
JD5	니트	자주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고리 전체에 니트 소재 사용 -전통적인 길이로 하였으며 소매 배래를 좁게 디자인 -신축성 있는 니트를 저고리 전체에 사용 -옷고름의 앞부분은 니트, 뒷부분에는 양단을 사용하여 직물과 니트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 		

〈표 3〉 니트를 활용한 치마 디자인

디자인 연번	소재	색상	작품설명	도식화 (빗금친부분:니트소재)	디자인
CD1	양단 니트	곤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치마 디자인 -소재는 어깨허리 부분 니트 사용, 치마폭은 5 폭으로 양단사용 -니트를 사용한 부분의 안감은 겉감과 동일 		
CD2	양단 니트	자주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마 어깨허리 길이를 기존의 어깨허리 보다 5cm 길게 디자인 -치마 어깨허리 부분은 니트 소재 사용, 치마폭은 양단 사용 -니트를 사용한 부분의 안감은 겉감과 동일 		
CD3	수직실크 니트	빨강색 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마 어깨허리 부분에 니트를 사용 -치마폭은 수직실크를 사용 -치마의 끈도 전통적인 묶음 처리 -니트를 사용한 부분의 안감은 겉감과 동일 		
CD4	조끼허리, 치마폭 전체 니트	다색 기하학 패턴 무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마 어깨허리와 치마폭 전체에 니트를 사용한 디자인 -어깨허리 말에 달린 끈이 기존의 묶는 것이 아니라 후크를 달아서 처리하여 착용시 편리 -치마끈도 니트로 만들 -치마의 주름도 니트이므로 퍼질 수 있어 한복 소재보다 약간씩 크게 1.2cm 너비로 주름 잡음 		
CD5	조끼허리, 치마폭 전체 니트	검정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마 전체에 니트 소재를 사용 -소재 자체에 레이스 및 스팽글의 트리밍이 있어 화려하고 우아한 디자인 -치마끈도 니트로 만들 -겉감 전체가 니트이므로 안감도 니트를 사용 -기존의 묶는 어깨 끈이 아니라 후크를 달아 처리 		

을 선호하였다.

형태상 변화를 통한 디자인에 대한 질문은 저고리의 길이와 소매 배래부분 이다. 저고리 길이는 짧은 저고리로 인하여 활동할 때나 팔을 올릴 때 거드랑이가 보이고 저고리가 뜨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소매 배래 부분 또한 넓어서 거추장스럽고 활동하기에 불편함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디자인시 저고리의 길이를 현재의 저고리길이보다 5cm 정도 길게 하여 디자인(JD2, JD4)한 것도 있고 소매도 부리부분으로 갈수록 좁게 하고 그 부분을 니트를 대서 접어 올릴 수 있게(JD2~JD5)도 하였다.

치마 디자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치마는 착용시 가장 불편한 부위에 대한 질문에 가슴이 팍 조이는 것과 치마 길이로 인한 불편함이 제일 많았다. 그러나 치마 길이의 경우, 전통한복은 본인들이 키를 커 보이게 하려고 길이를 길게 하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선호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치마의 팍 조이는 어깨허리를 개량하기 위해 어깨허리를 길게 하여 가슴에서 주는 압박감을 피하였다(CD2, CD5).

치마 전체를 니트로 디자인(CD4, CD5)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응답자도 32.5%로 높았으나 니트소재가 아주 가볍지 않은 한은 니트 무게로 인한 불편함이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인이 디자인 한 니트도 안감을 직물을 사용해 니트의 처짐을 방지하기는 하여 외양은 보기에 괜찮았지만 늘어지는 느낌은 방지할 수 없었다. 다음에 착장 실험 시 가벼운 니트 소재의 사용으로 디자인 제사를 해보도록 하겠다.

치마의 형태적 변화에 대해서는 치마끈을 기존의 한복 치마처럼 가슴 앞부분에서 묶는 것이 아니라 길이를 짧게 하여

치마끈 대신 단추나 후크를 사용하므로 답답함과 풀어지는 단점을 보완한 디자인(CD4, CD5)을 선호하였다.

■ 참고문헌

고복남(1987). **한국의복의 유형과 양식**. 서울: 집문당.
 김영자(1992).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김진아(1994). 여자 한복의 문양과 배색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문희(2003). 니트튜브를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소황옥(2003). **여자 한복 만들기**. 서울: 경춘사.
 윤혜준(2001). 니트웨어의 소재특성에 따른 패턴 연구개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선영(1989). 한복의 현황 및 예술화의 전망.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진경옥(1997). 한복의 복식미에 대한 인지도 조사 연구, **복식 30호**, p.101.
 채금석(1999). 생활한복 모형개발 연구(I), **복식 46호**, p.125.
 천중숙, 서동애, 허지혜, 최선희, 양유영(1998). 생활한복 디자인 설계에 관한 사례 연구, **생활과학논집, Vol.12**, p.48.

(2007년 10월 31일 접수, 2008년 2월 12일 채택)